

Bifan

2015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일간지

예매를 서둘러야 할 BEST 12

프로그래머 3인 추천작

개막작 <문 워커스> 앙투완 바르두 - 자쥬트 감독 인터뷰

<타투리스트> 이서 감독 · <시발, 놈-인류의 시작> 백승기 감독

7.17

NO.2

시네마

Day 12. 까까야 크라시바야: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64days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야
5월 28일~7월 31일
100개의 섬
아름다운 물의 도시



|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 |

White night, St. Petersburg



17
Jeonju
Intl.

2016
4.28
— 5.7

전주국제영화제

www.jiff.or.kr

Film
Festival

04 must BiFan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

06 preview

〈아메리칸 버거〉 〈기항지〉 〈선사인〉
〈메니에그: 삶은 달걀의 복수〉

08 cover story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지상중계

10 interview

〈문 워커스〉 앙투안 바르두-자퀘트
감독

12 people

〈타투리스트〉 이서 감독
〈시발, 놈- 인류의 시작〉 백승기 감독

14 special

프로그래머 3인 추천작 12편

16 BiFan diary

Sono Sion: Blood-Splattered Songs
of Love and Death

표지사진 박종덕

발행인 김충환
제작총괄 정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송경원 윤혜지 이예지
객원기자 문동영
사진 최성열 박종덕 박광희
편집 이다혜
디자인 김은 모보형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층
전화 032-327-6313
팩스 032-322-9629
씨네21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1101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 구독문의
1566-9595

must BiFan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표지사진 박종덕



01 BiFan과 함께 떠나는 영화여행, 시작!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한 11일간의 영화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했다. 개막식은 7월16일 배우 신현준과 이다희의 사회로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영화제는 26일까지 11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17일부터는 45개국에서 날아온 235편의 영화가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린다. 김만수 조직위원장은 “태풍을 뚫고, 메르스를 이겨낸 영화제다. 함께 해준 관객과 게스트에게 감사하다”며 “상상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현실이 되는 여행에 즐거이 동참해달라”는 말로 영화제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 김영빈 집행위원장은 “부천이 세계 장르영화의 중심이자 환상영화인들의 성지가 되고자 한다”는 포부를 담은 환영사를 전했다. 사전시상식까지 마무리한 뒤 오후 8시부터는 개막작 〈문 워커스〉가 상영됐다.



02

3D 영화 연출의 비밀과 거짓말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진행된 3D 영화제작 교육과정 KAFA+ Next D 8기 작품 〈방 안의 코끼리〉 상영 후, 감독들이 관객과의 대화를 나눈다. 같은 프로젝트 7기 작품인 〈신촌좀비만화〉(2014)의 한지승 감독이 사회를 맡고, 〈방 안의 코끼리〉(사진) 중 〈세컨 어카운트〉를 연출한 권철인 감독, 〈자각몽〉 권호영 감독, 〈치킨게임을〉 박수영 감독을 비롯해 9기 작품인 〈외계인이다〉 김현우 감독, 〈소년병〉 임보영 감독이 패널로 참여한다. 3D의 미학과 스토리텔링, 촬영과 후반작업에 대한 이슈들을 논한다.



03 임달화를 만난다

개막식은 끝났지만 레드카펫은 계속된다. 부천시청에서는 17일부터(21일을 제외한) 23일까지 매일 저녁 레드카펫 행사 '갈라 나이트'가 열린다. 첫 날의 주인공은 <충봉차>(사진)의 배우 임달화, 감독 류호량. 더불어 임달화는 오늘 <세월신투> <충봉차> 상영 이후 관객과의 대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회고전의 주인공다운 부지런한 행보다.



04

BiFan 무비토이전

키덜트(Kidult)가 급증하면서 토이가 새로운 문화로 떠올랐다. 이번 BiFan 무비토이전에선 페이퍼토이와 브릭콜렉션이 전시된다. 페이퍼토이는 페코토이와 일러스트작가 및 대학생 협업 작품, 브릭콜렉션은 레고커뮤니티 브릭인사이드의 작가모임 반스터드의 작품이다. 매일 30명 한정으로 페이퍼토이 체험KIT을 나눠주니 놓치지 말자. 7월17일(금)부터 26(일)까지 부천시청 아트센터.

05

곳곳에서 영화제를 즐기자

7월7일(금)부터 23일(목)까지 부천지역 10곳에서 공연·퍼포먼스를 보여주는 BiFan 무브먼트가 진행된다. 동시에 17일(금)부터 22일(수)까지 부천 원도심을 돌며 공연 및 영화상영을 하는 원도심권 문화행사도 열린다. 17일(금)에는 공연도 많다. CGV 소풍에서 오후 4시30분 딜라이트 피플, 5시 하인바다가 공연을 펼치고, 부천역 상상거리에서 오후 6시에 DJ 세포(Sefo), 6시30분에 헤비레인이 공연하니 체크할 것.

06

노래와 영화가 있는 잔디밭

'원더랜드 in BiFan'가 17일 글로벌, 18일 판타스틱, 19일 로맨틱 등 각기 다른 컨셉으로 3일간 진행된다. '판타스틱 콘서트'에는 멕시코 밴드 마리아치 라틴(금요일), 혁오, 술탄 오브 더 디스코(토요일), 후투스, 윤덕원(일요일)이 무대에 선다. 한밤엔 <위험한 상견례> <위플래쉬> <비긴 어게인>이 상영된다.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낮 3시부터 시작해 저녁 8시30분 야외 상영이 마칠 때까지 진행된다.



07

이제는 지갑을 열 때

영화제를 만끽하는 또 다른 방법, 바로 기념품샵에 들러 지갑을 활짝 여는 것이다. 에코백, 배지, 티셔츠, 티투 스티커, 팔찌 등 실용성이 돋보이는 한편 BiFan 특유의 엉뚱한 이미지를 보기 좋게 구현해놓은 물건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부스는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시청, CGV부천과 소풍, 롯데시네마 부천에서 운영된다.



아메리칸 버거

American Burger

보니타 드라케, 요한 블로만데르 | 스웨덴 | 2014년 | 78분 |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이런 관객에게 권한다

지극히 B무비스러운 '병맛' 코미디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한 무리의 미국인 학생들. 그들을 태운 버스는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에 있는 '아메리칸 버거'라는 공장에 도착한다. '아메리칸 버거'를 만드는 셰프(프레드릭 힐러)는 공장에서 잠시 나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라진다. 그리고 도축복장을 한 도살자들이 나타나 학생들을 무참하게 죽이기 시작한다. '아메리칸 버거'의 정체는 미국인의 인육으로 만드는 햄버거였던 것. 겨우 목숨을 구한 팻 너드(리암 맥도날드), 프레피 너드(벤자민 브룩), 카메라 너드(찰리 피터슨), 나이스 치어리더(애기 네스 쿠와카), 어도러블 치어리더(마들린느 보르그), 교사(레나 뱅스텐)는 각기 다른 기발한 방식으로 도살자들의 추적을 피한다.

〈아메리칸 버거〉는 전형적인 B급 감성의 슬래셔 무비다. 영화는 별다른 설명이나 논리 없이 초반부터 수학여행 온 미국인 학생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난

도질하며 킬킬거린다. 미국인 학생들의 수학여행 버스가 왜 '아메리칸 버거' 공장으로 왔는지, 셰프는 왜 미국인 인육만 고집하는지 등에 대한 논리적 설명 없이 진행되는 영화는 애초에 서사의 합리성엔 관심이 없다. 초지일관 엉뚱한 유머와 하드고어한 장면들을 펼쳐며 공포영화 하위장르 마니아들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잔인한 살육의 현장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금발의 글래머가 벌이는 해프닝, 죽은 척 가장했다가 다리가 잘릴 위기에 처하자 캐나다 국가를 부르며 위기를 모면하는 등 종종 예상 못한 코미디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 공동 각본/연출을 맡은 영국 출신의 보니타 드라케와 스웨덴 출신의 요한 블로만데르 콤비는 꾸준히 코미디 장르와 다른 장르를 접목시키는 시도를 해왔다.

김수 영화평론가



기항지

Port of Call

홍자광 | 홍콩 | 2015년 | 120분 | 부천 초이스 장편

토막난 채 화장실 변기에 버려진 16살 모델 지망생 지아메이의 사체가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서 발견된다. 경찰 수사관인 총(곽부성)은 이 사건에 투입되어 사건지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의외의 진실들이 하나둘 밝혀진다.

이 영화는 2008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여느 스릴러물처럼 수사과정을 쫓아가는 대신 지아메이와 그 가족, 주변 인물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사건을 직조해 나가며, 죽음의 비밀뿐 아니라 가해자의 과거 또한 풀어가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연민어린 시선을 보낸다. 사회 주변부로 내몰린 인간의 절망을 진득하게 훑어 내리며, 현대 홍콩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스릴러임에도 몽환적인 음악과 감성적인 연출이 눈에 띈다. 곽부성이 잿빛 머리에 콧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쓰고 등장하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형사로 분해 새로운 연기 변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예지



선사인

Sunshine

박진순 | 한국 | 2015년 | 97분 | 비전 익스프레스

박진순 감독은 일본에서 공간 디자인을 공부한 후,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거쳐 2012년 장편 극영화 <씨, 베토벤>을 내놓았다.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선사인>은 그의 다양한 이력이 곳곳에 묻어난 작품이다. 2년 전 탈북해 꽃집에서 일하는 설지는 과거 선전화를 그렸던 경험을 살려 벽에 그림을 그리곤 한다. 방송 다큐멘터리 PD 신웅은 설지를 대상으로 작품을 만들고자 제안하지만, 그녀는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애써 거절한다. 고민 끝에 신분을 철저히 감추겠다는 조건으로 촬영을 시작한 설지는 그림에 대한 의지를 새삼 확인한다. <선사인>은 일면 예쁜 장면들 아래, 타지생활에 묻혀 꿈을 접어둔 청춘이 제 삶을 찾아가는 통속극처럼 보인다. 하지만 설지가 자주 꿈을 헤맨다는 설정을 통해 이야기의 면적을 넓히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에 무게를 더한다. 제주도의 아담한 집들을 채우는 그림들처럼 예쁘고 착하게만 보였던 영화는 넓고 깊어진 이야기를 지나면서 건조하고 쓸쓸한 정서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다만 이 무게가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향하는 건 아니다. 그들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 출신의 가수 다나가 주인공 설지를 연기했다.

문동명



메니에그: 삶은 달걀의 복수

Maniegs: Revenge of the Hard Egg

출탄 미클로시, 아틸라 헤르코 | 헝가리 | 2014년 | 87분 | 애니판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적어도 이들과는 무관한 얘기다. 삶은 달걀 차니 큐피도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억울하게 복역해야만 했던 과거가 있다. 차니 큐피도는 친구 해리와 함께 자신들을 괴롭힌 세력에 복수하고자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부패경찰, 마피아, 드래곤 등 무지막지한 방해꾼들을 먼저 물리쳐야 한다.

'삶은 달걀'과 '애니메이션'의 조합만으로 무厘하고 귀여운 스토리를 상상했다면, 안됐지만 완전히 틀렸다. <메니에그: 삶은 달걀의 복수>는 헝가리안 무드로 가득한 액션 누아르다. 냉소와 섹슈얼리티, 블랙유머로 점철돼 있다. 자신들이 받은 치욕을 더한 치욕으로 되갚으려는 '나쁜 사나이'들을 그리는 동안 술한 할리우드 액션물, 수사물, 어드벤처 영화들을 기가 막히게 패러디한다. 수시로 각을 달리하는 촬영은 관객으로 하여금 액션슈팅게임 속에 들어온 유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윤혜지



영화 쏟아지는 부천으로와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시상중계

7월16일 오후 7시 부천체육관.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작 <문위커스>를 비롯해 45개국 235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장르 영화 프리미어 쇼 케이스! “상상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현실이 되는 여행에 즐거이 동참해 달라!” 김만수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11일간의 장르 영화 축제가 성대한 막을 올렸다. 판타스틱한 영화와 함께 레드카펫에 쏟아진 별들의 잔치를 즐겨보자. 씨네21 데일리팀



- 01 “우가자카우가우가”
원숭이들의 역습! <시발,
놈- 인류의 시작>에
출연한 배우들의 즐거운
레드카펫 퍼포먼스.
- 02 “영화제 짝이네~”
특유의 걸쭉한 사투리로
인사를 전한 ‘판타지아
어워드’ 수상자 정우.

- 03 '잇스타 어워드'를 수상한 배우 오달수,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의 밤. 오늘은 저한테도 판타스틱한 밤이네요."
 04 "아직 드레스는 어색하네요~."라고 말하지만 순백의 롱 드레스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 김고은, "드레스가 익숙해질때까지 앞으로도 부천국제영화제에 꼭 오고 싶어요."
 05 비전 익스프레스 섹션 상영작으로 초청된 <왕가혼>의 배우 황우남, 우첸위와 감독 베니 라우. 대만에서 부천으로 한달을 데려왔어요.
 06 오늘도 마론인형! 배우 대신 감독 자격, '부천초이스: 장편' 작품 심사로 참석한 배우 이정현, 판타스틱 영화 다 볼테야~
 07 관객에게 여유롭게 손을 내미는 입담화, 관록이 묻어나는 부천 레드카펫의 스타!



03
04
06



05



07



“폭력과 웃음은 잘 어울리는 콤비”

〈문위커스〉 앙투안 바르두-자쾅 감독

개막작 〈문위커스〉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 조작영상을 찍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앙투안 바르두-자쾅 감독은 장편 데뷔작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코미디를 선보인다. 광고 분야에서 이미 이름을 날린 그는 자신의 장기는 충분히 살리되 영화에 대한 존경을 바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음모론을 믿지 않는 감독이 만든 음모론에 관한 코미디는 우리에게 어떤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을까.

첫 연출작이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에 얽힌 음모론에 끌린 이유가 있다.

내가 1969년생이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 후 한 달 뒤에 태어났다. (웃음) 사실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믿진 않는다. 아들에게 달 착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구글을 검색해보니 엄청난 수의 음모론이 넘쳐나가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달 착륙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연관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조작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토록 많은 정보가 섞이고 만들어지는 걸 보니 사람들이 그 작업 자체에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나도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여보고 싶었다.

론 펄먼, 루퍼트 그린트, 로버트 시한의 조합이 재미있다. 어떻게 캐스팅을 결정했나.

캐스팅 과정은 여느 영화와 별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이들이 정말 함께 작업하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론 펄먼은 강인하고 루퍼트는 수줍음이 많은 편이다.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셋 다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프로다. 무엇보다 배우들 모두 시나리오의 수정 요구가 전혀 없었다. 첫 연출인 내게 보여준 그들의 신뢰에 감사할 따름이다.

감각적인 화면이 인상적이다. 론 펄먼이 화장실에서 격투를 벌일 때 클래식 음악이 나온다던지.

그 장면은 스탠리 큐브릭에 대한 오마주다. 영화 전반 큐브릭 영화의 흔적들이 깔려 있다. 〈시계태엽오렌지〉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음악들을 곳곳에 썼다.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지는 것도 그 시기 스탠리 큐브릭이 영국에서 활동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강인하고 딱딱한 CIA 요원 키드만이 히피 문화, 음악과 마약으로 넘쳐나는 영국에서 겪는 충돌과 혼란이 재밌게 그려진다.

코미디 영화라고 했지만 폭력의 수위도 상당하다.

폭력과 웃음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콤비라고 생각한다. 폭력 속에 웃음을 녹여내기 위해 상황 설정이나 장면 연출에 공을 많이 들였다. 과장된 캐릭터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 권력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희화화 측면도 있다.

당신이 연출한 혼다 광고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상도 많이 받았다. 새롭게 영화 연출에 도전한 이유?

간단하다. 더 재미있기 때문이다. 영화에는 자유가 있다. 광고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다 담아내기 어렵다. 영화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넉넉하고 표현의 폭도 더 넓다.

차기작 계획은?

제작비가 걱정이지만 언젠가는 SF영화를 하고 싶다. 액션도 좋다. 확실한 건 다음엔 코미디를 하고 싶진 않다는 거다. 솔직히 너무 힘들다. 나라, 문화마다 웃음의 코드가 다양한데 내가 의도한 장면에서 관객들이 웃지 않는다면 정말 참기 어려울 것 같다. (웃음)

글 송경원 · 사진 최성열

DISCOVER FIJI WATER



FACEBOOK.COM/FIJIWATERKR



INSTAGRAM.COM/FIJIWATERKR





새로운 장르영화를 고민한다

〈타투이스트〉 이서 감독

데뷔작 〈사람을 찾습니다〉(2008)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이서 감독이 6년 만에 새 영화 〈타투이스트〉를 발표했다. 날것의 느낌이 강했던 전작에 비하면 〈타투이스트〉는 스틸러의 제스처가 확연하다. 무겁기 때문에 그걸 장르적으로 풀어내면 더 많은 관객들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였다. 〈타투이스트〉는 어릴 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타투이스트와 타투의 고통을 즐기는 연쇄살인범이 대적하는 이야기. “깔끔한 이미지에서 극도의 잔인함을 끌어내고 싶었어요. 피해자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아야 심장이 뛰는 살인마는 송일국이 열연했다. 저예산 영화지만, 당시 새로운 연기에 대한 송일국의 의지가 컸기 때문에 성사된 캐스팅이었다. 〈타투이스트〉의 최초 상영을 앞둔 이서 감독이 말한다. “거대한 스펙터클 없이 감정을 끌고 가는 스틸러를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요.”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된다면, 보다 다양한 영화들을 시도해 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다. 이서 감독의 세 번째 영화는 〈타투이스트〉보다 더 도전적인 장르영화가 될 수 있을까? 패는 부천의 관객들이 쥐고 있다.

글 문동명 · 사진 최성열



저예산으로 내 색깔 내기!

〈시발, 놈- 인류의 시작〉 백승기 감독

본격 C급 무비를 표방한 〈숫호구〉(2012)의 백승기 감독이 인류의 기원을 파헤치는 신작 〈시발, 놈- 인류의 시작〉으로 돌아왔다. 주변의 모습을 C급 유머코드로 담아낸 전작과는 달리, 이번에는 스케일이 크다. 선사시대, 원숭이들 사이에 최초의 인간이 등장한 이야기를 그려낸 〈시발, 놈, 인류의 시작〉은 “C급 무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다. “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펼치는 C급영화야말로 일상적 소재에 한정되지 않고, 넓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 저예산으로 과감하게 스케일이 큰 이야기에 도전해 해보고 싶었다.” 그가 말하는 C급 무비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영화. 〈시발, 놈- 인류의 시작〉 촬영 전 중학교 미술교사를 그만두고 온전히 영화에 뛰어들 백승기 감독은 “판에 박힌 어른들만 봐 온 아이들에게 꿈을 쫓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 그의 꿈은 C급무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주성치, 찰리 채플린, 남기남 감독이 그랬듯 저예산으로도 자기 색깔을 내고 싶다. 꾸러기 스튜디오(백승기 감독이 설립한 제작사)의 영화가 한국영화의 다양한 색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글 이예지 · 사진 박광희

UCC
COFFEE®

나른한 오후엔 시원한 카페라떼



UCC카페라떼 375ml

갓 볶은 신선한 원두를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하여 향긋한 커피향과 우유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375ml 대용량 리캡 방식으로 제작되어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며 마실 수 있습니다.

전국 GS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 www.ucccoffee.co.kr | 고객센터 : TEL 02. 511. 6195

예매를 서둘러야 할 BEST 12

프로그래머 3인 추천작

강성규 수석프로그래머

쉐도우 하우스

House of Shadows

로셀라 드 베누토 | 이탈리아, 아일랜드 | 2014년 | 84분 | 부천초이스: 장편

성공한 아일랜드 예술가인 메간은 삼촌의 죽음을 접한 남편 레오를 따라 이탈리아의 아풀리아에 도착한다. 예상치 못하게 삼촌의 고성을 상속받게 된 레오와 메간은 고성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 곳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한다. 어느 무더운 대낮, 고성에 홀로 남아있던 메간은 이상한 존재들을 보게 되며 레오의 무시무시한 가족사에 휘말리게 된다. 이탈리아 지알로 공포의 전통을 이어받은 원숙한 연출력과 배우들의 열연은 첫 장편을 연출한 감독의 영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하다. 2014년 이탈리아 호러 페스티벌 대상 수상작.

앨리스: 원더랜드에서 온 소년

Boy from Wonderland

허은희 | 한국 | 2015년 | 115분 |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혜중(정소민)은 악몽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과거의 장소로 향한다. 혜중은 '원더랜드'란 이름의 펜션에 도착해 신비스러운 남자 환(홍종헌)을 만난다. 혜중은 간담을 서늘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환이 들려주는 로맨스 이야기에 빠져든다. 영화, 다큐멘터리,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온 허은희 감독이 판타지 호러 로맨스라는 장르를 표방하며 원숙한 연출력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영화의 영상미가 뛰어나다. 그리고 신세대 스타 홍종헌과 정소민은 향후 한국영화를 책임질 배우들로 그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다.



〈미스터 하이네켄〉

미스터 하이네켄

Kidnapping Mr. Heineken

다니엘 알프레드슨 | 영국, 네덜란드, 독일 | 2015년 | 95분 | 비전 익스프레스

1983년 실제로 있었던 세계적인 맥주회사 하이네켄 창업자의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재장난에 봉착한 다섯 명의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농담처럼 얘기하던 완벽한 납치를 계획한다. 납치를 결행하자마자 영화에서나 있을 상황들이 벌어지고 다섯 친구들은 유럽 전역을 떠돌아다니게 만든다. 명불허전의 배우, 안소니 홉킨스를 비롯해 존 스터게스, 샘 워싱턴 등 초호화 출연진이 멋진 조화와 매력을 보여준다. 스웨덴판 〈밀레니엄〉 시리즈 중 2, 3부를 연출한 다니엘 알프레드슨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영화 〈렛미인〉을 만든 토마스 알프레드슨의 형이기도 하다.

산티소 파일

The Santiso Report

브라이언 마야 | 아르헨티나 | 2015년 | 84분 |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인디애나 존스〉 풍의 어드벤처물에서 시작해 〈엑소시스트〉 류의 엑소시즘 심령물,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같은 마셜아츠 액션까지, 영화 〈산티소 파일〉은 그야말로 모험, SF, 호러, 액션 장르가 버무려진 B급 장르영화의 종합 선물세트다. 실종된 딸의 행방을 추적하며 진실을 파헤치는 아버지의 모험을 통해 거대한 음모가 드러난다. 영화가 끝날 즈음엔 자신도 모르게 “산티소 파일 2”를 외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뜨거운 여름, 장르 매니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기 위해 머나먼 열정의 아르헨티나에서 날아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무국적 소녀〉

유지선 프로그래머

무국적 소녀 Nowhere Girl

오사이 마모루 | 일본 | 2015년 | 85분 | 더 마스터즈

〈공각기동대〉 〈이노센스〉 등의 애니메이션과 최근에는 〈패트레이버 극장판〉의 발표로 국내 팬들에게는 기대를 모으며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자유롭게 오가는 오사이 마모루의 최신작이다. 학교라는 일상적 공간은 궁극의 하드보일드한 세계로 변모하며 그곳에서 미술 천재소녀 아이는 전사로 각성한다. 마지막 15분 액션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토라카게 대혈전 The Ninja War of Torakage

니시무라 요시히로 | 일본 | 2014년 | 94분 |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영화는 첫 장면부터 분수처럼 수직 상승하다가 온몸으로 떨어지는 피의 샤워로 시작된다. 〈토라카게 대혈전〉은 과잉된 캐릭터와 극적인 스토리를 기괴한 특수 분장, 다채로운 피의 표현과 현란한 액션으로 장면을 버무려 놓는다. 일본 B급 고어영화의 드림팀 니시무라 요시히로와 스타배우 사이토 타쿠미, 시이나 에이히가 선사하는 ‘피의 향연’의 익사이팅을 즐기라.

바들라푸르 Badlapur - Don't Miss the Beginning

스리람 라가반 | 인도 | 2015년 | 135분 |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최근 인도영화는 사랑을 테마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신나는 음악 속에 녹여낸 맛살라 무비에서 벗어나 잘 짜인 각본과 연출을 통하여 권선징악의 윤리적 덕목을 주제로 한 장르영화제작에 주목하고 있다. 〈바들라푸르〉는 2인조 강도들에게 아내와 자식을 잃은 남자의 복수극다. 한 남자의 복수극에 끝까지 몰입하게 만드는 영화 첫 5분의 싸웁스는 충격적이다. 말 그대로 ‘끝까지 간다’.

커피의 맛 Filosofi Kopi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 | 인도네시아 | 2015년 | 117분 | 비전 익스프레스

커피하면 떠오르는 것도 시대를 달리하며 변모한다. 30년 전에는 국민배우 안성기였고, 8년 전에는 〈커피 프린스〉의 꽃미남들이었다. 요즘은 누구, 무엇, 어디일까. 인도네시아에는 커피로 철학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확인케 하는 유려한 영상과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의 자연스러운 구성이 탁월하다. ‘필로소피 커피’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커피를 찾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침에 처음 드리핑한 커피의 맛처럼 깔끔하고 싱그럽다. 커피 한 잔의 철학을 전한다.



〈예루살렘 : 심판의 날〉

이상호 프로그래머

예루살렘 : 심판의 날 JeruZalem

도론 파즈, 요아브 파즈 | 이스라엘 | 2015년 | 87분 |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페이크 다규식의 좀비물로 파운드 푸티지 좀비 장르의 붐을 일으켰던 〈REC〉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탄생했다. 영화 〈예루살렘 : 심판의 날〉은 1인칭 시점으로 공포를 배가시키는 파운드 푸티지에서 진일보한 “스마트 글라스” 설정으로 이러한 형식의 영화가 갖는 치명적 비판과 단점 –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왜 카메라를 계속 촬영하며 들고 뛰는가-하는 논란을 불식시킨다.

설원의 누와르 The Swedish Moment

5인 공동 감독 | 핀란드 | 2014년 | 75분 | 비전 익스프레스

어쩌면 우리가 핀란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오로라와 노키아 정도일지도 모른다. 또 핀란드는 영화 〈카모메 식당〉이나 하루키 소설에서 안식과 구원의 도피처로 종종 등장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무엇이 지친 영혼을 북구의 머나먼 나라 핀란드로 이끄는 것일까. 설원을 배경으로 트렁크 속 한 구의 시체를 둘러싼 소동을 그리는 〈설원의 누와르〉를 보고난 후라면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머리스하면서도 슬픈, 그러나 따뜻한 영화 〈설원의 누와르〉와 함께 핀란드로 치유의 여행을 떠나보자.

타투이스트 Tattooist

이서 | 한국 | 2015년 | 93분 | 부천초이스 장편

희귀한 ‘페메기 문신’ 전문가이자 의사 자격증까지 갖춘 타투이스트 조수나(윤주희)는 꿈에 나타나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 밤마다 홍대 클럽에서 자극적인 춤을 춘다. 어릴 적 느낀 악몽의 흔적만이 단서다. 마침내 최대의 살인마 한지순(송일국)이 조수나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수나는 자신이 제조한 치명적인 문신용 약품으로 복수를 준비한다.

좀비 홀로코스트 I Survived a Zombie Holocaust

가이 픽튼 | 뉴질랜드 | 2014년 | 99분 |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펼치고자 영화제작의 부푼 꿈을 안고 영화학교를 졸업한 웨슬리. 하지만 막상 그에게 주어진 첫 역할은 산속 좀비영화 촬영현장의 막내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좀비역할을 하던 배우들이 진짜 좀비로 변하기 시작한다.

Sono Sion: Blood-Splattered Songs of Love and Death

BiFan has always shown strong support for Japanese horror films. In past editions, masters of the genre from the neighboring country such as Miike Takashi, Kurosawa Kiyoshi and Tsukamoto Shin'ya have been celebrated with special screenings and retrospective programs. This year the seat of honor will be occupied by Sono Sion, a poet, a performance artist and a fiercely independent maverick filmmaker, whose category-defying feature films stride the boundary between avant-garde art and in-your-face exploitation, often garnished with disturbingly incongruous moments of lyrical beauty or pitch-black humor.

Born in 1961, Sono originally wanted to be a comic artist but soon set his mind to becoming a film director, churning out a series of no-budget short and feature films (including his first work titled *I Am Sono Sion* [1985]), that won prizes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s well as kudos among the cognoscenti. Notable among the works from his early period are *Bicycle Sighs* (1990) and *The Room* (1992), the latter a dark and foreboding "thriller" in which the alienating cityscape of Tokyo is a constant, oppressive presence. He also continued to stage guerrilla street theater with his colleagues in the performance collective Tokyo Gagaga.

Sono's reputation as a horror maven was solidified after the word-of-mouth success of *Suicide Club* (2002), an extremely disturbing yet narrative-wise compromised exploration of the then-topical phenomenon of group suicide among young schoolgirls in Tokyo. Ishibashi Ryo is riveting in the role of a police detective gradually dragged into an incomprehensible nightmare of quasi-religious conspiracies seemingly masterminded by children. *Strange Circus* (2005), a more phlegmatic and restrained effort with many layers of psychological (and cinematic) deceptions, was received even better outside Japan, despite its transgressive subject matters



Why Don't You Play in Hell?

involving incest and child abuse. Sono has since made more conventional and approachable (at least on the surface) psychological horror films such as *Cold Fish* (2010), but for many of his admirers, his magnum opus remains *Love Exposure* (2008), a nearly four-hour-long "melodrama" concerning a sinful Catholic priest, his voyeur-transvestite son and their obsessive pursuits of love. BiFan 2015's special program on Sono Sion showcases a wide range of his oeuvre from the last fifteen years to satisfy both gorehounds salivating for limb-tearing mayhem and connoisseurs of the challenging cinematic arts at once beautiful, grotesque and absurd. Noriko's *Dinner Table* (2006) is a sequel-of-sorts to *Suicide Club* that viciously vivisections the illusion of the perfect bourgeois family in Japan. *Guilty of Romance* (2011), featuring powerful performances from its female leads Mizuno Miki and Togashi Makoto, courts controversy with its cold gaze at the dissolution of (female) subjectivity via overflowing sexual desire. *Why Don't You Play in Hell?* (2013), on the other hand, may be seen as a twisted, darkly funny commentary on the cinematic representation of violence. And of course, there is *Love & Peace* (2015), a heart-warming (no, really!) tribute to the power of love (seriously!), in which a rock-singer-wannabe office worker (super-cute Hasegawa Hiromi) learns important life lessons from a green mutant turtle (... okay, so maybe it's not entirely serious). Happily for you gorehounds out there, the Sono Sion special culminates in his latest feature *Tag* (2015) which, very loosely adapted from Yamada Yusuke's wacky dark fantasy, promises to bring two of his favorite obsessions, schoolgirls and blood-drenched violence, into a combustible mix!

Kyu Hyun Kim

Bucheon Choic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Awards at BiFan

With 235 films from 45 countries, screening over the next 9 days, BiFan offers moviegoers a lot of choice! Luckily for the juries of the Bucheon Choice Feature and Short competitions, most of BiFan's offerings are non-competition films. But, as in the past, BiFan awards will support the freshest new works from up and coming film talents. The Feature film competition presents awards in six categories: Best of Bucheon, Best Director, Best Actor, Best Actress, Jury's Choice, and NH Nonghyup Citizen's Choice. The first two awards come with cash prizes of 15,000,000 KRW and 10,000,000 KRW, respectively, which will undoubtedly help the award winners develop their creative talents in future projects.

The Short film competition presents four categories of awards, including Best Short Film, Jury's Choice, Best Korean Short Film, and Citizen's Choice, which also feature cash prizes for the first three categories.

BiFan's competition sections bring together international juries representing expertise in film-making and culture industries. However, in addition to specialized knowledge about film technique and artistry, the festival competitions also privilege the wisdom of viewers, with Citizen's Choice awards to highlight audience favorites. Come and be a part of the citizen jury at BiFan2015 and cast your vote for your Bucheon Choice!

Michelle Cho

REVIEW

Transformation and rage: A review of 100 Yen Love



There's something irresistible about the idea of a truly great actor taking on the role of a boxer. After all, acting is among the most physical of the arts, and the way that certain actors throw themselves into their roles

recalls the way that boxers attack their opponents.

Ando Sakura plays Ichiko, a 32-year old unemployed woman who, after a vicious fight with her sister, finds herself moving out of her parents' home. Considering the miserable state of the main character at the start of the film, and her open hostility toward the world in general, we might expect the usual trajectory: the troubled protagonist hits bottom, and then slowly, through a newfound interest in boxing, puts her life in order and achieves a sense of decency and self-worth in the ring. Although in one sense, 100 Yen Love follows this storyline, in another sense it does not. The emotions of the film, and the ups and downs of its protagonist, remain hard to predict even as Ichiko transforms from a glowering loser into an angry boxer.

Director Take Masaharu, who previously made *Cafe Seoul* (2009) and *Eden* (2012), deserves credit for keeping the mood raw and the audience off-balance. Certain moments of the film are genuinely disturbing and hard to forget. But really, this movie is all about Ando Sakura. Viewers who have seen her acting in previous films, such as *Sono Sion's Love Exposure* or Kurosawa Kiyoshi's TV movie *Penance*, are sure to remember her. Although petite in real life, the physicality she brings to her performances make her a formidable presence. In a way, it seemed inevitable that one day she would step into the ring to play a boxer. Her training for this role and her natural intensity give the boxing scenes an unusual intensity. As in most boxing movies, she is facing an opponent, but ultimately fighting herself. And the building up of her character in the early sections of the film give the final scenes a real force. Ultimately, I'm not sure that the film has very much to teach us about life or human nature, but it succeeds as spectacle: the spectacle of an actress like Ando giving us everything she's got..

Darcy Paquet

chedule

7.17 FRI

영화명 원제 | 등급 | GV | 예매코드 | 극장

11:00

판타스틱 단편 결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 ⑤ | 101 | CS2
선샤인Sunshine | ⑤ | GV | 105 | CS10
폭력교실 Dangerous Boys | ⑫ | 109 | CS11
스위트 홈 Sweet Home | ⑧ | 113 | CB3
세계의 끝과 원더풀 원더랜드 wonderful World END | ⑫ | 117 | CB7
판타스틱 단편 결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 ⑤ | GV | 121 | CB8
택시: 나이트페어 Night Fare | ⑧ | 124 | LB1
판타스틱 단편 결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 ⑤ | 128 | LB2
판타스틱 단편 결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 ⑤ | 132 | LB3
찰리농장의 저주 Charlie's Farm | ⑧ | 136 | CH
엑스트라오디너리 테일Extraordinary Tales | ⑤ | 140 | KM

14:00

침입자 Violator | ⑧ | GV | 102 | CS2
바바렐라 Barbarella | ⑤ | 106 | CS10
그리울 런 Amor | ⑤ | GV | 110 | CS11
좀비버 Zombeavers | ⑧ | 114 | CB3
판타스틱 단편 결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 ⑤ | GV | 118 | CB7
악마의 협주곡 Scherzo Diabolico | ⑧ | 122 | CB8
포토그래퍼 The Photographer | ⑧ | 125 | LB1
위기의 여행 Death Trip | ⑧ | GV | 129 | LB2
판타스틱 단편 결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 ⑧ | 133 | LB3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A Space Odyssey | ⑫ | 137 | CH
세월신투 Echoes of the Rainbow | ⑤ | GV | 141 | KM

17:00

판타스틱 단편 결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 ⑧ | GV | 103 | CS2
타투리스트 Tattooist | ⑧ | 107 | CS10
할로우 Hollow | ⑤ | GV | 111 | CS11
판타스틱 단편 결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 ⑤ | GV | 115 | CB3
히비 락 Hibi Rock | ⑤ | 119 | CB7
방 안의 코끼리 [3D] Elephant in the Room [3D] +메가토크 | ⑧ | GV | 123 | CB8
성난 화가 - 디렉터스 컷 Angry Painter - Director's Cut | ⑧ | GV | 126 | LB1
닌자 헌터 Ninja Hunter | ⑧ | 130 | LB2
노리코의 식탁 Noriko's Dinner Table | ⑤ | 134 | LB3
문워커스 Moonwalkers | ⑧ | GV | 138 | CH
메니에그: 삶은달걀의 복수Manieggs: Revenge of the Hard Egg | ⑧ | 142 | KM

20:00

천사와 악마 Pastorela | ⑧ | 104 | CS2
좀비 홀로코스트 | Survived a Zombie Holocaust | ⑧ | 108 | CS10
왕가흔 Wong Ka Yan | ⑤ | GV | 112 | CS11
이니시애이션 러브Initiation Love | ⑤ | 116 | CB3
기항지 Port of Call | ⑧ | 120 | CB7
bombay velvet | ⑧ | 127 | LB1
자살 클럽 Suicide Club | ⑧ | 131 | LB2
무국적소년 Nowhere Girl | ⑧ | 135 | LB3
충봉차 Two Thumbs Up | ⑫ | GV | 139 | CH
KM 31 KM 31: Kilometre 31 | ⑧ | GV | 143 | KM

24:00

심야상영1 Midnight Screening 1 | ⑧ | 144 | CH

행사

15:00 부천시청 잔디광장 글로벌 원더랜드 : 멕시코
16:30 CGV 부천 BiFan 무브먼트: 딜라이트 피플, 하얀바다
17:00 CGV 부천 8관 MEGA KAFA RIDE: 3D 영화 연출의 비밀과 거짓말
18:00 부천북부역 상상거리 원도심 행사: DJ 세표, 헤비레인
19:40 부천시청 갈라나이트: <충봉차> 배우 임달화, 감독 류호랑

등급 Rate

⑤ 전체 관람가 General ⑫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⑮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⑮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⑮ 19세 이상 관람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S2 CGV소풍 2관(구 프리머스) CGV Sopooooong 2 CS10 CGV소풍 10관(구 프리머스) CGV Sopooooong 10 CS11 CGV소풍 11관(구 프리머스) CGV Sopooooong 11 CB3 CGV부천 3관 CGV Bucheon 3 CB7 CGV부천 7관 CGV Bucheon 7 CB8 CGV부천 8관 CGV Bucheon 8 LB1 롯데시네마 부천 1관 LOTTE CINEMA Bucheon 1 LB2 롯데시네마 부천 2관 LOTTE CINEMA Bucheon 2 LB3 롯데시네마 부천 3관 LOTTE CINEMA Bucheon 3 KM 한국만화박물관 KOREA MANHWA MUSEUM CH 부천시청 Bucheon City Hall GN 부천체육관 Bucheon Gymnasium
※상영일정은 영화제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iFan

사람 이끄는 법 배워요

초청팀 뱃지 담당 박성진



초청팀에서 뱃지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어떤 업무인가. VIP, 일반, 심사위원 등 뱃지들을 색깔별로 분류해서 만들고, 게스트패키지까지 데스크에서 수령해갈 수 있게 준비하는 역할이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올해부터는 뱃지 사진 옆에 칸을 나눠 이름, 소속, 직책을 넣는 까다로운 작업을 거쳤는데, 일일이 수작업했다. 뱃지를 건 사람들을 보면 뿌듯하다. 초청팀 일에서 배우는 게 있다면, 해외부터 국내까지 모든 인원이 파악이 되니 영화제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오는지 알 수 있어 좋다. 초청팀의 자원활동가 관리를 맡은 것도 도움이 된다. 최종적 꿈은 감독인데 연출을 하려면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지 않나.

연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아이템 단계인 장면이 있다. 이번 영화제가 끝나면 부산국제영화제의 DCP 코디네이터를 할 예정. 이런 영화제 경험들이 연출에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글 이예지 · 사진 박종덕

cinst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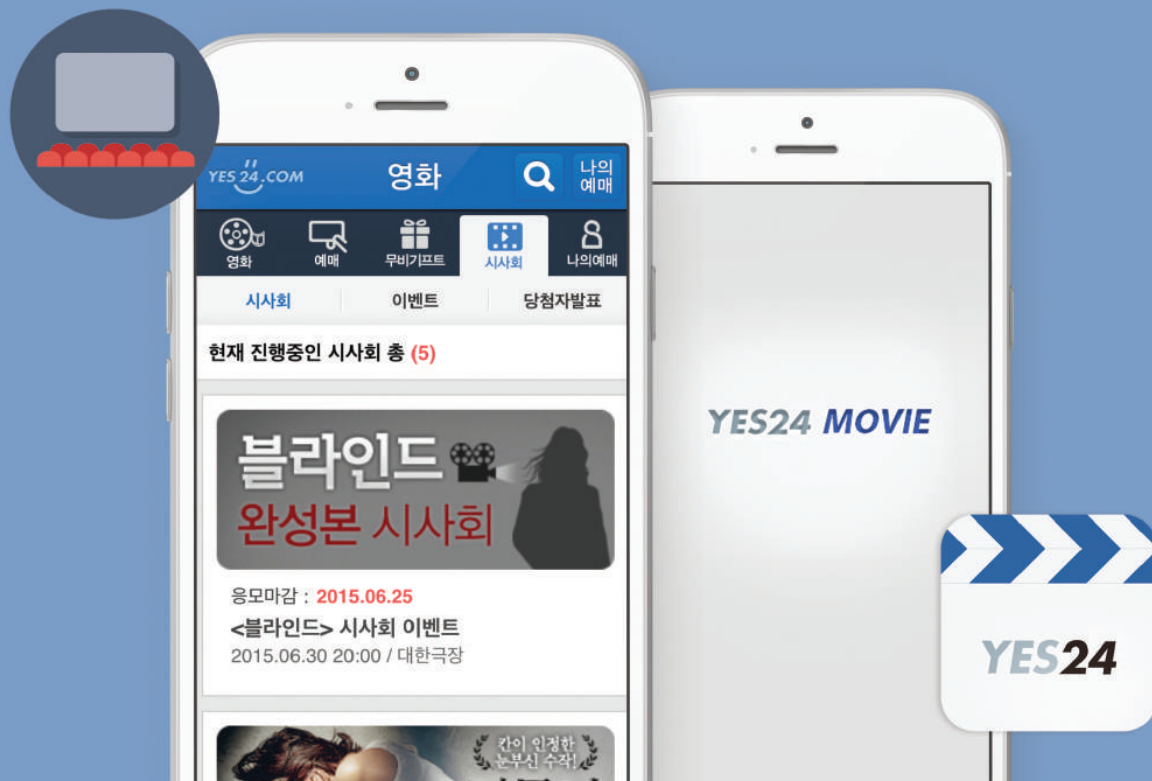


문동영



#BiFan2015 #데일리 작업중 #부천시청. 로비에서 마주한 풍경. 역대 홍보대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라며 다그치는 느낌. 파이팅 부천! 사용된 말의 힘. 멋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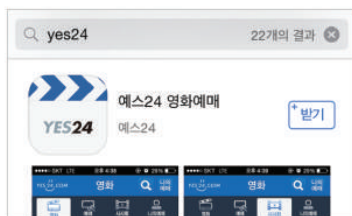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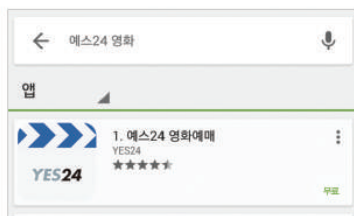
누구보다 빠르게! 시사회로 보고 싶다면?



예스24 영화 모바일 앱 설치 방법

1. 스토어에서 검색

구글 PLAY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예스24” 를 검색



2. QR코드 스캔



예스24 영화 앱 다운받기 >

극장에 문화를 더해 컬처플렉스가 되다

영화를 즐기거나 문화를 즐기거나
극장이 어디까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여기 CGV에서

ALL ABOUT
CGV
STORY just
4 YOU



ALL
ABOUT
MOVIE



STARIUM

IMAX

VEATBOX

SWEETBOX

4DX

AUTHENTIC BAKERY TOUTS LES JOURS
KOREAN HEALTHY FRESH KITCHEN BIBIGO
FROM BENEATH IN CUBE
POST CONTEMPORARY & COLLABORATION CONCEPT STORE 1st LOOK MARKET

CONVENIENCE CAFE TWOSOME COFFEE

ULTIMATE STEAK EXPERIENCE THE STEAK HOUSE



THE PRIVATE CINEMA

ABSOLUTE CINEMA EXPERIENCE 4DX

ROMANTIC MOMENT AT SWEETBOX PREMIUM

VIBRATION SOUND VEATBOX

SOUND REALLY MATTERS, BEATS BY DR. DRE

NEO-TREND CULTUREPLEX

PICK-UP

